

2027회계연도

거제시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

시민의 목소리 670명,
2027년 예산편성의 방향을 묻다.

총 참여 규모

670명

조사 기간

8. 3~8. 23.

참여 플랫폼

주민e참여&
소통할거제

01 건전재정

시민이 꿈은 건전재정의 첫 번째 과제

‘효과가 낮은 기존 투자사업 구조 조정’이 41.8%로 가장 높았습니다.



선택과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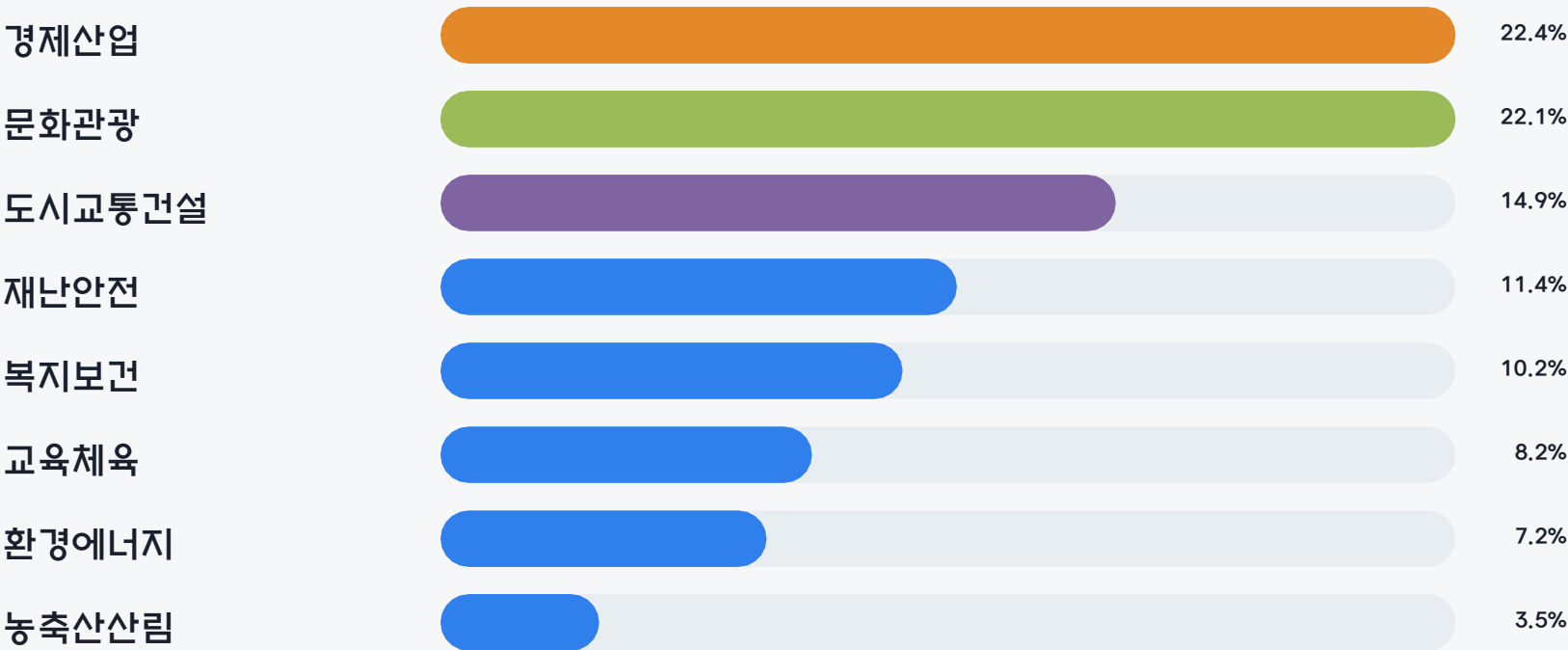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조정해 필수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가장 강했습니다.

국도비 확보(22.7%)와 자주재원 확충(21.0%)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02 투자 우선순위

2027년 예산, 어디에 더 투자해야 할까요?

2개 분야를 선택한 결과, 경제산업과 문화관광 분야가 가장 높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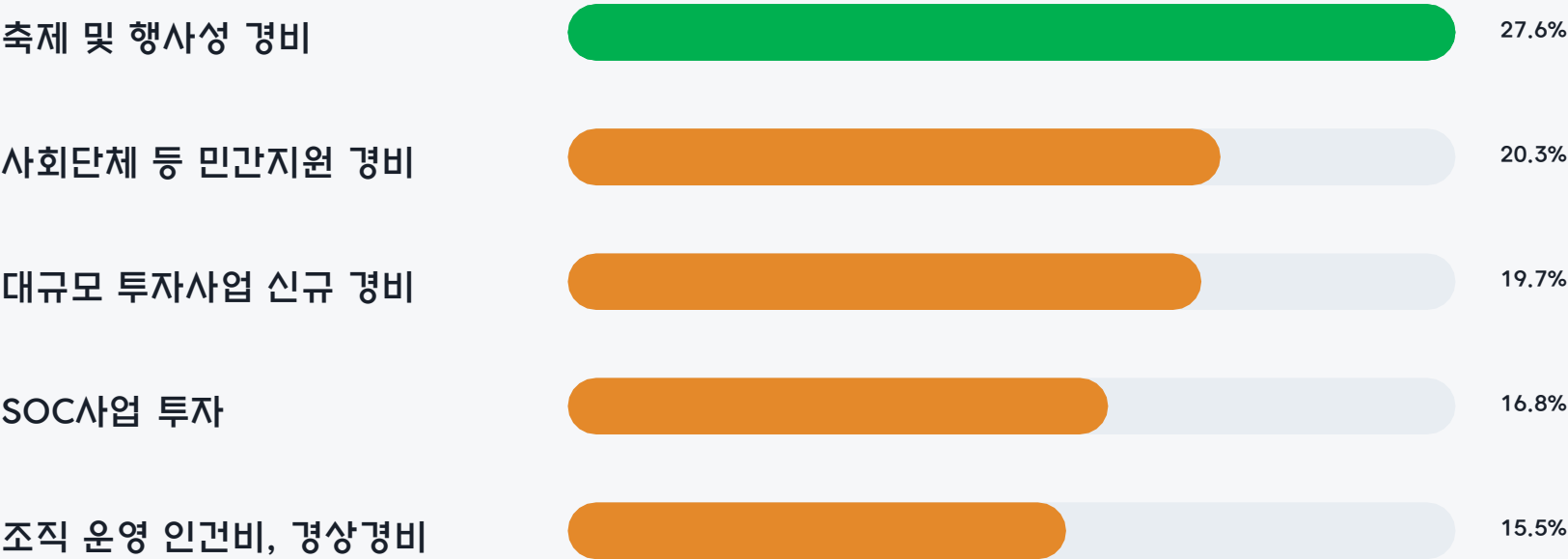
TOP 3

경제산업 22.4%, 문화관광 22.1%, 도시교통건설 14.9%

03 지출 효율화

줄여야 할 곳은 ‘행사성, 민간지원’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우선 검토, 조정할 분야를 물었습니다.



재정지출의 선택과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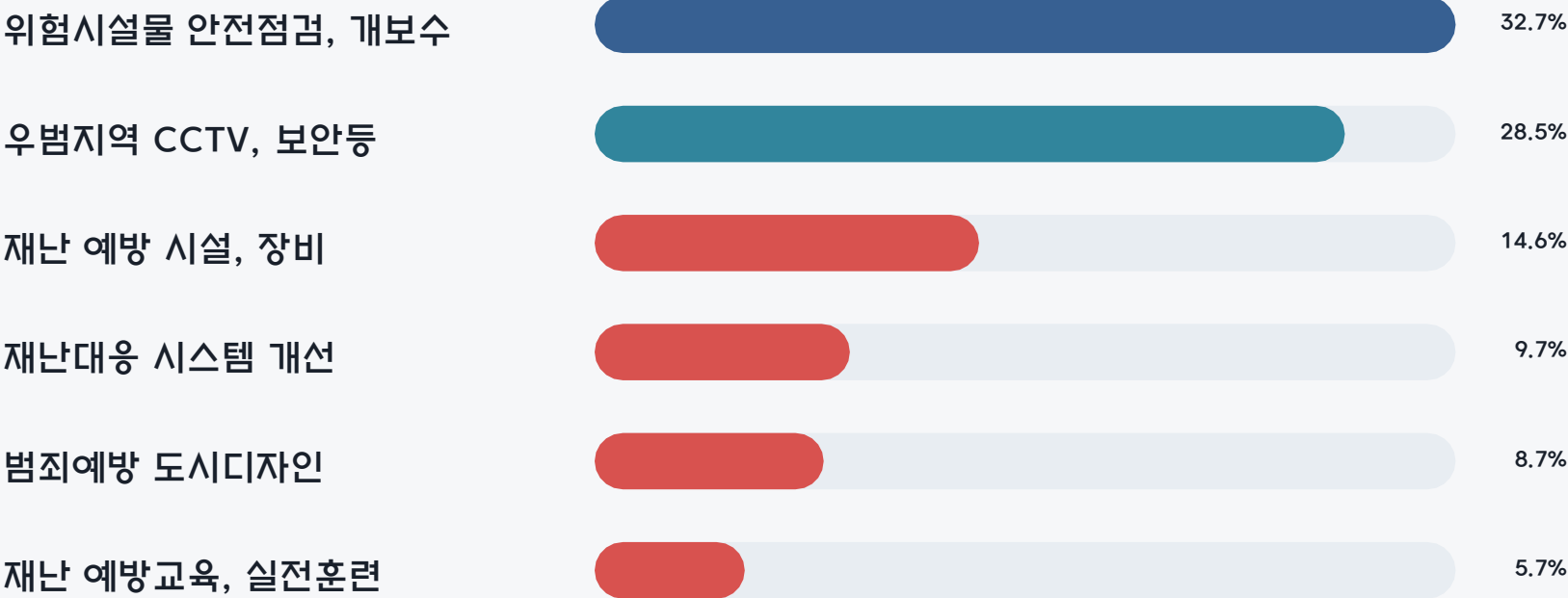
축제, 행사성 경비와 민간지원 경비를 중심으로 사업의 산출근거와 기대효과를 점검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도 재원조달과 유지관리비 등 중장기 재정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04 재난안전

시민이 가장 원하는 안전 투자

위험시설물 점검, 개보수와 CCTV, 보안등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졌습니다.



선제적 안전관리

위험시설물과 범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되,
재해예방시설 및 장비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함께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이변에 대응한 재해예방 투자 필요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제의 미래 먹거리, 경제와 관광에서 찾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민의 우선순위입니다.

경제, 산업 분야



문화, 관광 분야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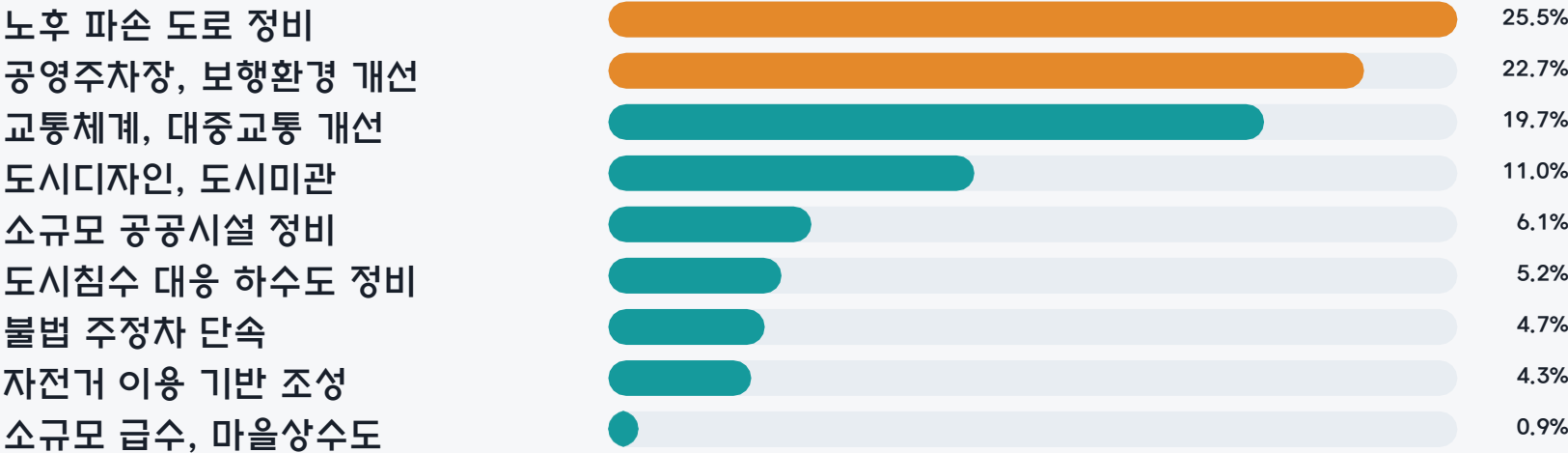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19.2%),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기반시설·관광자원 개발(22.7%)이 각각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소상공인과 노동자,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데 대한 투자 수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06 생활 기반

매일 체감하는 생활 기반에 투자

도로,교통,환경 분야에서는 생활 불편을 직접 줄이는 사업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도시,교통,건설 분야



환경,에너지 분야



생활 속 불편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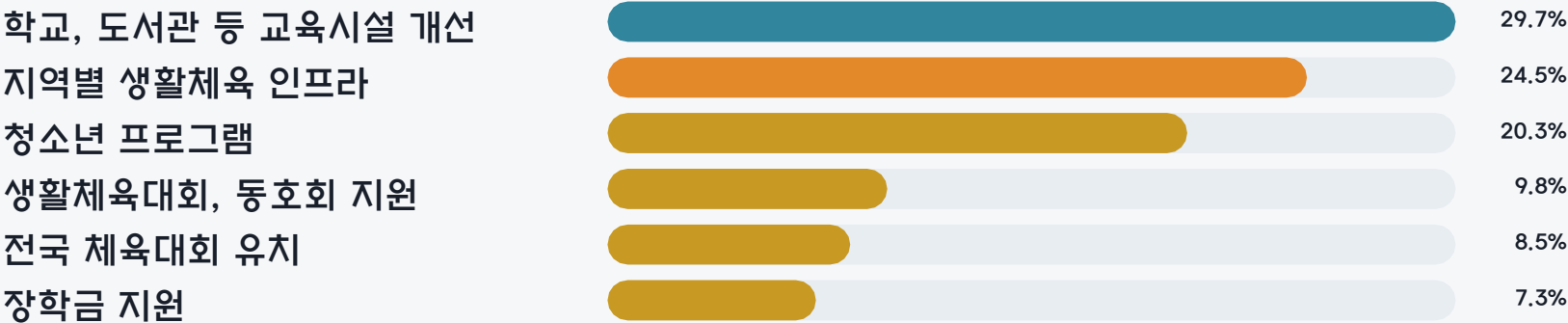
도시·교통·건설 분야에서는 노후·파손 도로 정비(25.5%)가,
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23.3%)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생활환경 개선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정책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07 교육, 복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활 가까운 복지

교육,체육과 복지,보건 분야의 우선 투자 수요입니다.

교육,체육 분야



복지, 보건 분야



아이들의 교육복지에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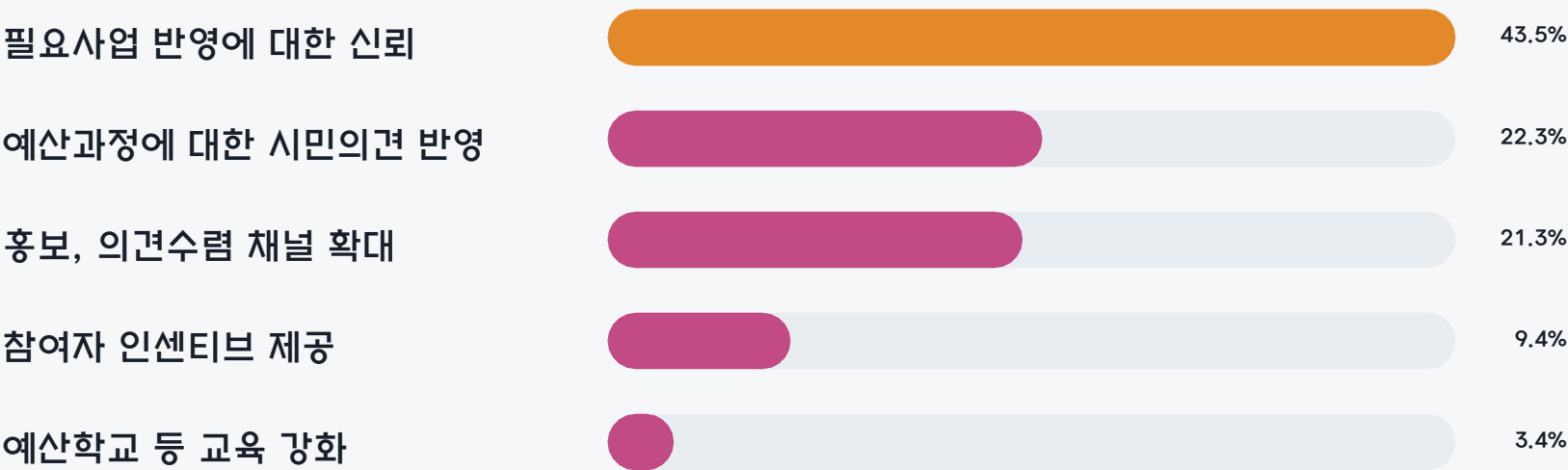
교육·체육 분야에서는 학교·도서관 등 교육시설 개선(29.7%)이,
복지·보건 분야에서는 보육·아동·청소년 복지(20.6%)가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복지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민이 믿고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인지도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반영된다’는 신뢰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시민 참여의 방향

제안사업의 발굴, 검토, 선정과정 등을 적극 공유하고,
온라인 등 다양한 참여 채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응답을 4가지 방향으로 요약하면

01 선택과 집중

효과가 낮은 기존 투자사업을 점검하고 필수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재배분

02 재정지출 효율화

축제, 행사와 민간지원 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

03 지역경제, 안전 투자

경제, 산업과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재난, 안전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

04 시민참여 확대

필요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된다는 신뢰를 높이고 참여 기회를 확대